전통사찰 관련법·창건주 승계·승적 등 권한쟁의 사찰토지환수
스님과 불자 위한 소송 전문
법무법인 나라 TEL 031.441.2727 FAX 031.468.2263

법보신문
beopbo.com
1988년 5월 16일 창간 | 구독신청 〉 02-725-7010
불기 2563년 | 단기 4352년 (음력 10월 17일)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 제1512호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정기 후원인을 모십니다.
후원 상담 02.725.7010 www.igoodday.co.kr

중앙종회, 백양사 고불총림 전격 해제

11월6일, 정기종회서 만장일치
“총림구성 요건 못 갖췄다” 지적
백양사, 총림서 교구본사 전환
본사주지 추천도 산중총회 결정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가 총림에서 전격 해제됐다. 이에 따라 백양사는 총림에서 일반 교구본사로 전환됐으며, 본사주지 추천도 방장이 아닌 산중총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6일 217차 정기 중앙종회를 열어 도심 스님 등 24명이 긴급 발의한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해제의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가 총림 지정을 해제한 것은 1999년 7월, 141회 임시회에서 영축총림 해제를 결의(2000년 3월 146회 임시회에서 재지정 결의)한 이후 두 번째다.

대표 발의자 도심 스님은 “고불총림은 1996년 총림으로 지정될 당시 방장 서옹 스님 당대에 한해 총림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조건부 총림지정이었을 뿐 아니라 총림실사특별위원회의 실사 결과 고불총림은 총림법에 규정한 수행기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총림요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도심 스님은 “총림 구성요건인 승가대학원은 학인수가 현저히 모자란 상태에서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백양사 전통강원 건물에서 천왕문 밖 템플스테이 건물로 이전해 버렸다”면서 “율학승가대학원과 염불원은 없는 실정이고, 오랫동안 본사 경내에 있던 고불선원은 대중들의 반대에도 폐쇄해 재가보살선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도심 스님은 “백양사는 지난 11년 동안 5명의 주지가 바뀌면서 단 한 번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오랜 전통을 이어온 명부전의 지장보살과 시왕상을 만세루로 옮겨 버리고 납골당으로 불법 개조함으로써 전통 수행도량이기를 포기했다”며 “무엇보다 총림 해제를 원하는 대중이 절대 다수라는 사실로, 총림유지가 본사발전과 대중화합을 저해하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심 스님은 ‘고불총림 지정해제를 발의한 배경’과 관련해 “지난 216차 중앙종회에서 총림실사특위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실질적 요건이 현저하게 미비한 총림에 대해 총림법에 근거해 지정해제 제청 등의 처리를 해줄 것을 총무원에 이첩했다”며 “그러나 총무원장스님이 지정해제 제청을 하지 않았고, 다른 총림들의 적정한 운영을 독려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구성요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불총림을 총림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심 스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중앙종회는 별도의 논의 없이 가결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종회의원이 무기명비밀투표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 종회의원이 만장일치 가결에 찬성하면서 고불총림 지정해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8대 총림에서 7대 총림으로 줄게 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대중들은 봉불식에 이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친필로 작성한 상월선원 현판 개막식을 진행했다.

“상월선원은 한국불교 결기 모아낼 성소〈聖所〉”

위례결사대중, 11월4일 봉불법회
“부처님 가르침 따라 용맹정진”
원행 스님 등 사부대중 2000명

“부처님, 당신이 고행을 버리고 은둔자들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듯이, 저희도 이제 위례신도시의 황량한 뜨락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겐 이곳이 붓다가야가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하며 목숨 건 정진에 나서는 9명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이 11월4일 위례 상월선원에서 봉불식과 개원식을 봉행하고 결사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봉불식은 오전 10시부터 상월선원이 위치한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서 봉행됐다. 봉불식에는 결사 대중스님들의 거룩한 뜻을 잇고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2000여 사부대중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이번 결사는 지난 2월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도, 다 놓아버린 곳에서도,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도 틀림없이 공부가 있을 것이니, 승가본연의 모습으로 차별 없이 정진해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9명의 결사 대중을 대표해 진각 스님은 부처님께 위례천막결사를 알리는 고불문을 낭독했다. 고불문에는 결사 대중들이 동안거 기간 동안 상월선원에서 지키기로 다짐한 청규가 오롯이 담겼다.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옷은 한 벌만 허용한다.”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묵언한다.”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

고행의 길에 나선 결사 대중들의 서슬퍼런 청규가 발표되자 자리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결사 대중들의 원력이 꼭 성취되길 기원하며 손을 모았다.

5면에서 이어짐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김형규 본지 대표 불교언론인상 수상

조계종, 11월6일 수상작 발표
본지 임은호 기자 신문부분
11월26일 전통공연장서 시상식

김형규 대표

임은호 기자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에서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또 본지 임은호 기자의 ‘위법망구의 현장을 찾아서’가 신문부분 우수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6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언론을 통해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방송, 신문, 뉴디어 등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과 언론계에 남다른 공로로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에 크게 이바지한 언론인을 선정했다”며 수상작을 발표했다.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한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는 평기자와 데스크를 거쳐 대표로 취임하는 등 불교언론인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6년 대표 취임 후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을 설립,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매년 1억원 이상을 후원하고 있으며 출판자회사를 통해 불서 보급에도 매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문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본지 임은호 기자의 ‘위법망구의 현장을 찾아서’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진 스님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삶을 좇음으로써 불교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심사결과 BTN UHD다큐드라마 ‘사명대사’가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방송부문 TV최우수상은 KBS스페셜 ‘세계유산 대흥사-인다르망의 숲에서’가, 라디오 최우수상은 BBS의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KBS1TV 다큐세상 ‘마음의 꽃 연등’이다.

현대불교신문 ‘必환경 시대&Green Buddhism, 키워드로 읽는 Green Buddhism’이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뉴미디어부문은 BTN의 ‘부처님법 꽃피우다’가 최우수상을, BBS불교방송 오디오 팝캐스트 ‘붓다 시리즈’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영화 ‘나랏말싸미’와 뮤지컬 ‘싯다르타’도 특별상을 받는다.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1월2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9455명 스님에게 한국불교 미래 묻는다

불교사회연구소 설문조사 실시
출가감소대책·사회 역할 등 질문

법랍 10년 이상 조계종 스님 모두에게 향후 30년 뒤 종단과 한국불교 미래를 묻는 대대적인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출가자 감소와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 있는 로봇스님의 설법이나 출가장려대책, 불교의 사회적 역할 등 다양한 질문을 토대로 얻어진 결과는 한국불교 미래설계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본부장 정념 스님)는 11월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단과 한국불교의 중장기적 미래설계를 위한 여론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주관하는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 스님)에 따르면 중장단기 과제와 전략 수립에 대한 기초적인 여론을 스님들에게 직접 묻는 종단 차원 첫 설문조사다. 설문은 총 100여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2면에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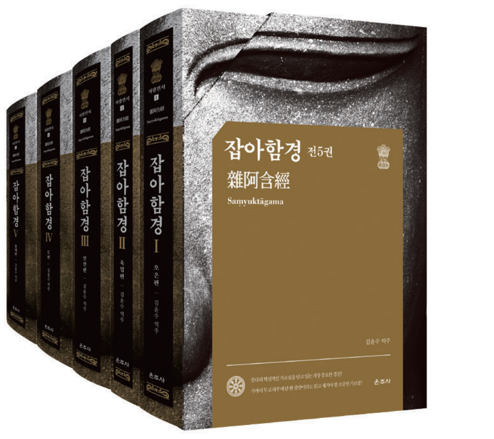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법보신문 수습기자 모집

법보신문은 신심과 열정으로 현장을 누비며 함께 불교사를 기록하고 정토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 편집국 : 취재기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격조건 : 대졸 이상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접수기간 : 11월15일까지
- 보낼 곳 : shb1028@beopbo.com
- 문의 : 02)725-7011(모지희)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아함경!
한역 4부 아함의 온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주석! 한산 김윤수 역주 『아함전서』 1~16

잡아함경(전5권)

1권~5권 3,270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50,000원

증일아함경(전4권)

1권~4권 2,25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20,000원

중아함경(전5권)

1권~5권 2,91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40,000원

장아함경(전2권)

1권, 2권 1,228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60,000원

★ 전집 구입시 별도 제작된 『전체 색인집』을 드립니다.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67-1 3층 전화: 02)926-8361 팩스: 0505-115-8361